인도 자동차기업 마힌드라 광주 투자 주목

〈쌍용차 대주주〉

시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투자 제안·협력 모색

딜립 순다람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 오늘 시청 방문

광주시가 인도 대기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구룡자동차와 2500억원대 대형 투자유치 협약에 이어 또다른 '글로벌 투자유치'가 성공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도 기업인 마힌드라 코리아의 딜립 순다람 사장은 21일 오전 광주시청을 찾아 윤장현 광주시장과 접견한다. 마힌드라 그룹은 100개국 이상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으로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로도 잘 알려졌다. 국내에는 자동차 회사인 마힌드라&마힌드라, IT 회사인 테크 마힌드라가 진출했다.

마힌드라&마힌드라는 SUV, 트럭, 세단, 트랙터뿐 아니라 1회 충전으로 1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도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이 주목되는 것은 이 회사가 광주시의 투자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윤 시장은 지난달 초 세계 20여개 전기차 회사에 서한문을 보내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시에 투자한다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힌드라 측이 이에 화답했으며 양측 실무자들 간 면담도 최근 이뤄졌다. 윤 시장은 딜립 순다람 사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을 설명하고 투자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힌드라 측에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과 한전 에너지밸리 등 핵심 사업부문을 설명하는 등 협력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은 지난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국내외 단체장과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광주'를 세일했다.

윤 시장은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사업, 친환경자동차 육성 정책, 광주가 갖는 친환경자동차 선도기지로서의 장점 등을 강조했다.

중국 구룡자동차사가 내년부터 광주에서 생산할 전기승합차(E6). 이 차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3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주시 제공〉

윤 시장은 이날 국내외 8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광주시는 자동차산업과 전기, 전자, 에너지산업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시는 노사 파트너십과 지역 협력체제에 기초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협업하고 융합하는 사회통합적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구룡자동차의 광주 진출을 위한 협약 사실도 소개하고 앞으로도 세계의 많은 업체가 광주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세돌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대사

5월 5~29일 나주서 개최

인류를 대표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친 신안 출신 이세돌 9단(33·사진)이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대사로 나선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일 "이세돌 9단이 박람회 홍보대사 요청을 수락, 성공 개최 붐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제2의 이세돌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쳐 전 세계에 우상이 된 이세돌을 내세워 박람회의 국내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세돌 9단은 "전남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지금은 휴식과 해외 일정이 많아 시간을 낼 수 없지만,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지난해부터 영화배우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과 삼시세끼의 나영석PD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제품, 농특산물, 경관 등의 디자인 가능성, 나아가 산업화 가능성을 찾아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소재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제2 동경한국학교 조기 설립 공조"

이낙연 지사, 도쿄지사 회담

지난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도쿄도청에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와 회담하고 제2 동경한국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비롯해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에서 마스조에 지사는 한일 정부의 군대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양 국민 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도쿄와 전남 등 지자체들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치외교적으로 양국 관계에 기복이 있더라도 민간의 풀뿌리 교류와 지방 사이의 협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한일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양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 동경한국학교 설립에 마스조에 지사가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되도록 빨리 제2 동경한국학교가 문을 열고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10월 도쿄에 준공될 재일한국인 중심의 양로원 '고향의 집'과 그 뿌리인 목포 공생원의 윤학자(일본명 다우치 치즈코) 여사에 대해 소개하며 "'고향의 집'과 재일한국인 노인들에 대해서도 도쿄도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동아일보 도쿄특파원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으로 일한 일본통이며, 마스조에 지사는 대학 교수와 참의원 의원으로 일한 지한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I로 중단' 닭고기 2년만에 홍콩 수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국산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홍콩 측이 지난해 5월부터 수입을 중단한 우리나라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 제품에 대해 한국·홍콩 검역 당국이 협의를 거쳐 11일자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I 청정국 지위 회복 시점인 지난달 28일 이후 생산(부화)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해 만든 신선 가금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또 2014년 5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에 이미 등록된 전남지역 수출 작업장 10곳에서 생산된 닭고기를 모두 수출할 수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산 가금제품이 홍콩으로 안정적으로 수출되도록 AI 재발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문화전당 찾은 유커 20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보원 안에 설치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후보 자격 논란…광주디자인센터장 공모 잡음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공모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자인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5대 원장 1순위 후보로 박모 I사 대표를, 2순위 후보로 송모 교수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박 대표는 도예품, 디자인 전문업체인 I사를 운영하고 있고, 송 교수는 민·관 문화 관련 토론회 등에 활발하게 참여해온 전문가다.

공교롭게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시장 추천 인사 2명과 이사회 추천 인사 2명은 박 대표를, 시의회 추천 인사 3명은 송 교수를 추천했다.

시 의회에서는 박 대표의 추천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 측 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표 시의회 의장은 "물건을 납품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한때 '을' 지위에 있던 인사가 기관장에 앉았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도예 기념품 등을 시에 납품한 실적 등을 엄밀히 따져 임명이 적합한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사지만 추천위원회의 결론은 실무경력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더민주 '친문당'으로 재편 1면서 계속

또 호남 출신으로 이번에 가장 많은 측근이 공천 배제된 정세균 의원도 문 전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꼽힌다. 정세균계는 19대 현역의원 16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정세균·백재현·이원욱·김성주·김춘진·김영주 의원 등 6명뿐이다. 강기정·유대운·전병헌·오영식·이상직·유대운·이미경·정호준 의원의 공천 탈락이 확정됐고 박민수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의원도 정세균계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계 인사들도 대부분 낙마했다. 천준호 전 비서실장은 영입인사 오기형 변호사의 전략공천에 밀렸고 권오중 전 비서실장과 임종석 전 정무부시장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박원순계'에서는 유일하게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정도만 서울 성북을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친노 패권주의로 분열을 자초한 더민주가 친문계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지역은 아직도 '반(反)문재인' 정서가 강해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